**프랑스 문화예술의 행정과 마케팅**

**탐방국가 : 프랑스**

**탐방기간 : 2022.02.11 ~ 2022.02.20**

|  |  |  |  |
| --- | --- | --- | --- |
| **구분** | **이름** | **소속** | **학번** |
| **지도교수** | **문시연**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
| **학생 1** | **김나래**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116446** |
| **학생 2** | **김이정**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216503** |
| **학생 3** | **김정혜**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011551** |
| **학생 4** | **김주연**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114810** |
| **학생 5** | **박소희**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1912307** |
| **학생 6** | **박예진**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211951** |
| **학생 7** | **박재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214927** |
| **학생 8** | **이영서**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015192** |
| **학생 9** | **이지은**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113863** |
| **학생 10** | **오지수**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2012666** |

**1. 탐방목적**

**(1)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함**

이번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프랑스 언어, 문화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한국에서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을 이미 진행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론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프랑스의 문화를 느끼는 것은 학생들에게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프랑스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주고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도핀 대학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영화, 음악, 박물관학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에 있어서도 동기 부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2) 기관 탐방과 프랑스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

이번 글로벌 탐방은 명성 있는 파리 도핀 대학에서의 강의뿐만 아니라 가이드를 동반한 기관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중요 기관에서 재직 중인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에 살을 붙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와 관련된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강의는 프랑스어로 진행되므로 프랑스어 학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이드를 동반한 기관 탐방을 통해 프랑스의 중요 문화, 예술 기관을 탐방함으로써 학생 홀로 왔다면 놓쳤을 법한 기관 관련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보고, 눈 앞에 있는 건물이나 작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설명을 듣는 것은 단지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일 것이다.

**2. 탐방활동**

1. **1일차**
2. **수업 참여**
   1. **프랑스에서의 문화 정책 (Politique cuturelle en France)**

첫째 날은 프랑스에서의 문화 정책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파리 국립미술고등학교의 디렉터이자 파리 도핀 대학교의 문화 경영 석사 공동 디렉터이신 Hélène ORAIN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프랑스는 타국과 비교했을 때 문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특히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문화가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랑스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정부 주도로 문화 정책을 실행해 왔으며, 이렇게 축적된 문화예술 행정의 노하우와 자부심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영향력 외교’라는 이름 하에 문화를 여전히 프랑스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첫날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의 기분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문시연 교수님께서 어려운 부분은 통역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유익한 수업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Repas de bienvenue(환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 프랑스에서 먹는 학식 또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  |  |
| --- | --- |
|  |  |
|  |  |

**(2) 기관 방문**

**①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이번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올 기회가 흔치 않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했다. 최재철 대사님께서 밝은 미소와 함께 반겨주셔서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한국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의 문화를 공부했을 때는 잘 체감하지 못 했던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어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언어 하나를 알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대사님께서 처음 프랑스어를 시작하신 계기와 공부 방법 등을 들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②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

다음 방문 기관은 한국 문화원이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방문 당일에 외국인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계셨는데 집중해서 관람하시는 모습에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 종종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 이때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엄청 반가워하거나, 서울에 방문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과거에 비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여행을 가 볼만큼 발전된 것 같아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다. 2019년에 샹젤리제 인근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문화원 프로그램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프랑스 내 한국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POP, K-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넘어서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공연 또한 개최하고 있다.

|  |  |
| --- | --- |
|  |  |
|  |  |

**2) 2일차**

**(1) 수업참여**

**① 프랑스의 국제적 문화 정책 (Politique d’influence à l’international)**

프랑스의 국제적 문화 정책에 관해 3시간 정도 피리 도핀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파리 도핀 대학교의 문화 경영 석사 공도 디렉터이신 Benoit Paumier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 해 주셨다. 수업은 크게 2개의 파트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문화보존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유네스코 지정의 모순이었다. 유네스코 지정의 목적은 보존이다. 하지만 지정됨으로써 관광객이 몰려 문화재 보존이 쉽지 않고 나아가 주변 자연환경 및 자원이 훼손되고 고갈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다시 말해 ‘Overtourism’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책으로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몽마르트 언덕 주변의 주차장 등을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드는 등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문객 수 제한 등의 방법을 도입해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문화 유산 파괴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시 중이던 러시아 측 전시 작품들을 전쟁 중인 러시아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작품 중 우크라이나 예술가의 작품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예술가의 망명 등에 대한 논점도 있었다. 이렇듯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봄으로써 하나의 사건이나 정책에 따라오는 장단점이 생각보다 많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통해 뉴스를 볼 때도, 한 사건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운 것 같다.

두 번째 파트는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이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국의 문화력 확산 방식에는 총 5가지가 있었다. 해외 문화원, 축제와 전시 등의 수교, 문화적 협력, 한국의 케이팝이나 일본의 망가와 같은 자국 특유의 문화 확산(배포전략), TV나 라디오를 통한 시청각 배포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공공외교,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를 한 국가의 매력이라고 정의하셨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에서의 문화는 자유로운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정치 영역과 문화 영역의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Benoit Paumier 교수님)

**(2) 기관 방문**

**① Conciergerie 콩시에르주리**

시테 섬에 위치한 콩시에르주리에 방문해 도슨트님의 설명과 함께 내부를 관람했다. 콩시에르주리는 왕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파리 최초의 궁전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감옥으로 사용된 공간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을 건축 양식이었다. 아치형과 좌우 대칭이라는 고딕 양식이 매우 돋보이는 멋진 건축물이었다. 또한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강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콩시에르주리는 아주 흥미로웠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투옥했던 이 감옥에서 식량배급은 하나의 커다란 과제였다고 한다. 이 때 강에 인접한 이 위치는 식량을 조달 하는데 큰 이점이 되었다고 한다. 콩시에르주리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수감도 있다. 그녀가 살던 궁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작은 공간의 감옥을 보며 당시 그녀의 심정도 느껴볼 수 있었다.

 이 기관방문 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순히 감옥만을 본 것이 아닌, 단두대에 얽힌 이야기와 혁명 세력들간의 분쟁 및 혁명 이전 왕들의 생활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가 담긴 이곳, 콩시에르주리를 탐방하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  |  |
| --- | --- |
|  |  |
|  |  |

**3) 3일차**

1. **기관 방문**
   1. **코메디 프랑세즈 (La Comedie Francaise) & 생 퇴스타슈 교회 (Église St Eustache)**

셋째 날은 기관 방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도핀 대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였다.

제일 먼저, 생 퇴스타슈 교회 앞 Jardin Nelson-Mandela에서 몰리에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Jardin Nelson-Mandela에는 유명한 조각 작품인 ‘듣는 사람’도 있다. 이 조각상은 바닥에 귀를 대고, 손을 귀 근처에 가져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인데, 파리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후 바로 앞에 위치한 생 퇴스타슈 교회에 들어갔다. 생 퇴스타슈 교회는 프랑스 재상이었던 리슐리외, 극작가 몰리에르 등이 세례를 받은 교회이다. 곧게 뻗은 기둥들과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엄숙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독특한 인상을 받은 이유가 건물 기둥은 고딕 양식으로, 장식품들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꾸며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몰리에르가 살았다고 추정되는 집이 있는 골목도 방문해, 몰리에르의 생애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코메디 프랑세즈로 이동했다. 코메디 프랑세즈는 1680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극단으로, 프랑스의 유일한 국립극장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극작가인 몰리에르의 대부분 작품이 바로 이 극장에서 열려, 코메디 프랑세즈를 몰리에르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극 관람이 아닐 때에는 내부 공간을 둘러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글로벌 탐방단이라는 좋은 기회 덕분에 코메디 프랑세즈 소속 가이드님의 설명을 받으며 내부를 관람하였다. 극장 내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층 중앙석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한다. 좋은 관람석에 앉아 배우들과 스텝들이 준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모두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  |
| --- | --- |
|  |  |
|  |  |

**(2) 수업참여**

**① 프랑스의 음악산업**

점심 식사 이후 도핀 대학교에서 프랑스의 음악 산업에 대한 이론 수업이 진행되었다. CNM(Centre National de la musique, 국립음악센터)의 최고경영자이신 Romain LALEIX 교수님께 수업을 받았다.

프랑스의 음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K-POP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으신 Romain LALEIX님과 글로벌 탐방단원들의 토론 역시 유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어떻게 K-POP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나 역시 평소에는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라서 우리나라의 한류와 K-POP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글로벌 탐방단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참신하고 새로워서 재미있었다. 프랑스에서 BTS와 BLACKPINK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두 그룹의 글로벌한 성공비결에 대해 탄탄한 스토리텔링, 이미 완성도가 높은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늦게 세상에 알려졌음, 색다름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4) 4일차**

**(1) 수업 참여**

**① 프랑스의 문화 마케팅**

목요일에는 도핀 대학교의 Marie Ballarini 교수님께 '프랑스의 문화 마케팅'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마케팅 분야는 오늘날 한국에서 꾸준히 각광받는 주제 중 하나이며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 관련 직업을 얻기 위해 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수업도 종종 듣곤 한다. 하지만 도핀 대학교에서 교수님께 들었던 수업은 단지 '마케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문화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였다. 특히, '매체를 통해 현재 프랑스가 문화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직접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셔서 더욱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역사를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프랑스 유튜버를 소개해주셨는데 유튜버의 인기 동영상을 시청하며 이 분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 이외의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썰처럼 설명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 이 점을 프랑스와 연관 지으면서 국경과 상관 없이 문화 마케팅의 방식은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 라이브로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 프랑스의 다양한 명소를 가이드께 설명을 듣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버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처럼 지하까지 있는 공간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아 실시간 라이브가 중단되기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였다. 유튜버가 항상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문화의 영역인 프랑스의 역사를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처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의 역사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대본을 검사 받고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유튜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꼼꼼한 검사와 확인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  |  |
| --- | --- |
|  |  |
|  |  |

**(2) 기관 방문**

1. **BnF (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프랑스 국립도서관)**

목요일 도핀대 수업 후에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인 BnF에 방문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미테랑 도서관, 리슐리외 도서관, 아스널 도서관, 오페라 도서관 및 박물관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다. 1368년을 시초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문화정책의 일부로 발전시켜 1988년에 공사를 시작해 1996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도서관을 건설하여 개관하게 되었다. 역사가 길고 깊은 만큼 BnF의 건물들 중에는 몇 백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있어 도서관의 건축 양식만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우리는 가이드님과 함께 리슐리외 도서관 내부를 먼저 관람했다. 하지만 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만 내부를 이용할 수 있어 우리는 밖에서 내부만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안에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는 점이었다. 천장부터 책꽂이, 책상 등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넓고 큰 국립도서관 내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 인터넷으로 소설을 읽거나 웹툰과 웹소설이 많이 발달하면서 직접 도서관에 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직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특히, 어린아이가 홀로 도서관 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책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  |
| --- | --- |
|  |  |
|  |  |

**5) 5일차**

**(1) 수업참여**

**① 프랑스의 영화산업 (Industrie du Cinéma)**

금요일에는 ‘프랑스의 영화산업’에 대한 수업이 약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한국의 각종 영화산업 및 영화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세정 Sejeong HAHN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셨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파리한국영화제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영화산업과 프랑스 내 한국 영화의 입지와 사업 규모 등을 설명해 주셨다.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지난 해인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파리한국영화제에서 수상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프랑스에서 생각보다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프랑스는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  |  |
| --- | --- |
|  |  |

**(2) 기관 방문**

**① Palais de Tokyo 도쿄궁**

팔레 드 도쿄는 파리 16구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2022년에 개관한 미술 전시관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스위스 작가의 전시와 에이즈 관련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팔레 드 도쿄 또한 가이드 님의 설명과 함께 내부를 관람했다. 가이드님께서는 팔레 드 도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현대 미술은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작품 해설이 있어서 전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쉬웠다.

또한, 팔레 드 도쿄는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을 받으며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조각, 설치 미술, 비디오 아트 등의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며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와 미래의 작품들을 발굴해 나아가는 프랑스의 문화 정책과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  |
| --- |
|  |
|  |

**3. 탐방 후 느낀 점**

**(1) Paris Dauphine 대학에서의 수업 참관**

<프랑스 문화 예술의 행정과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Dauphine 대학에서 5일간 수업을 참관하였다. 우리 대학에 있는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수업 중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정책>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프랑스 문화정책, 국제 문화정책, 음악, 영화, 마케팅과 같이 총 5가지의 세분화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 해당 수업은 학과 문화 수업의 연장선으로 현지에서 프랑스어로 수업을 들으며 질의응답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화 정책 분야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프랑스 관광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루브르, 오르세와 같은 박물관과 에펠탑, 퐁피두와 같은 멋진 건축물이다. 이처럼 프랑스를 관광 명소로 만들고 문화 예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박물관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문화 정책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알 수 있었다.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나 이를 담을 공간인 건축물 등의 가치를 알고 잘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브랜딩이나 홍보 방식에는 제약 없이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층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는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실질적인 관광 수익을 많이 올리는 오래된 명작이나 대표적인 박물관에만 지원을 치중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현재는 수요가 적더라도 미래의 폭넓은 문화의 장을 위해서 신예 작가 발굴 및 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다. 프랑스의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도 유명한 작품이나 아티스트의 수입 중 일부가 마이너 장르나 신인 아티스트에게 지원금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는 비단 관광이나 문화 예술 측면의 상업적인 이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한국보다 높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 작년 여름 프랑스는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많은 실외 공연들이 취소가 되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문화 예술계를 흔들었던 사건으로 현재 국립음악센터에서는 지난 공연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공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새로운 공연 장비가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고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방향이라면 장비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 세대의 환경 문제는 세계의 뜨거운 감자이며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실질적인 대안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도 노력이 필요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국가적인 많은 투자와 다양성 및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배워올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의 문화 예술 분야 역시 작품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시 공간의 분위기, 건축물, 브랜딩,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구상해야 하며, 문화 예술 역시 환경, 마이너리티, 인권 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관점이 개입될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관 방문 및 프랑스 문화 체험**

 ①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공식적인 일정의 첫째 날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과 한국 문화원에 방문했다. 파리 도심의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 문화원에서는 한국의 식문화, 공예품, 기획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었고 한국어 수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와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해당 기관에 방문했을 때 혼자서 조용히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람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최재철 대사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주목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공용어로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도시 전문가, 국제기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② Conciergerie

둘째 날에는 시테 섬에 있는 Conciergerie에 방문했다. 시테 섬은 과거의 파리 섬으로 현재 파리의 한 중심 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Conciergerie는 과거 궁전으로 쓰였다가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감옥으로 쓰였고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 투옥한 곳으로 유명하다. 파리의 시작인 작은 섬에서부터 프랑스의 굵직한 혁명의 역사까지 배울 수 있었다.

③ La Comedie Francaise

프랑스 연극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는 Molière다. 셋째 날에는 그가 태어나 세례를 받았던 교회에서부터 생가, 그리고 그가 지켜온 프랑스 고전극의 전통까지 그 흔적을 따라 걸어보았다. 프랑스의 국립극장인 La Comedie Francaise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천장까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1층 데스크 근처에는 희극과 비극의 대표적인 여배우의 조각상이 있었다. 국립극장인 만큼 하루 3회에 걸쳐 연극과 공연을 상영하며 평균 150유로 정도인 연극 티켓 가격에 비해 가장 비싼 좌석의 가격이 80유로 정도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굉장히 오래된 극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연극을 관람하기에는 불편함 없이 쾌적한 느낌이었다. 기관을 방문해서 해설을 들을 때는 연극을 상영하지 않는 시간대였지만 조명, 음향, 무대 설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다음 연극을 위해 무대 연출을 진행해 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진귀한 경험이었다.

④ BnF: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넷째 날에 방문한 BnF 도서관은 열람실과 뮤지엄을 합쳐놓은 복합적인 공간으로 독서와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섞여있는 특이한 장소였다. 유명 건축가 Dominique Perrault가 리모델링한 BnF 도서관은 건물의 외관과 내관 모두 인상 깊은 조형을 자랑하고 있었고, 2층에는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을 만큼의 연극, 미술,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 및 보존되고 있었다. 또한 걷기 좋은 작은 공원과 잠깐의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또한 입점해 있었다. 프랑스는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민당 독서량이 높은 국가이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보니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독서실뿐만 아니라 열람실까지 무거운 침묵이 맴도는 한국과 달리 bnf 도서관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층 정도 높이의 멋진 책장이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열람실에서 어떤 이들은 문서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비치된 음악 플레이어로 노래를 듣고 있기도 했다. 특히 할머니와 아이가 책을 보며 조그만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이 기억 남는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한국과 다른 다소 생소한 분위기는 프랑스의 박물관에서 나타났다.

파리에 위치한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놀랐던 점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무겁고 진지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학생 같아 보였는데 조각상 앞에서 편하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전시실에서부터 근처 공원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자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작품을 감상할 때 더 조심스럽고 미술관 매너가 엄격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긴장감 없이 편안한 모습에 관광객들이 조금 더 경직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듯 우리가 체험한 프랑스는 문화 예술의 장벽을 최대한 낮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박물관 야간 개장을 하고, 만 26세 이하는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 역시 이러한 목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프랑스의 문화 예술에 대한 큰 그림을 담은 기관들을 방문하며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것을 융합할 것인지에 따라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⑤ Palais de Tokyo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기관은 바로 Palais de Tokyo이다. 루브르나 오르세, 오랑쥬리 등 유명 미술관이 고전, 중세 등 과거의 미술작품을 다뤘다면 Palais de Tokyo는 프랑스의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페미니스트 반핵주의자인 Miriam Cahn의 전시와 에이즈에 관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Miriam Cahn 작가의 전시는 폭력에 대한 주제로 신체 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한 작품들이 인상 깊었다. 페미니스트 작가인 만큼 여성의 생애 주기 속의 경험들에 주목해 임신의 과정 중 출생의 장면을 포착한 여러 작품이 있었다. 또한 동물과 인간을 평행선상에 위치해둠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비폭력과 평등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하에서는 에이즈로 투병 중인 여러 작가들이 합작한 에이즈에 관한 전시가 이뤄졌다. 당사자성이 강하게 드러난 전시로 공통된 메시지로는 에이즈에 투병하는 사람들을 지우거나 병의 고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로서의 삶에 주목한 전시였다. 빈 의자와 옷가지로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부재를 암시한 전시와 애인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이미지들의 공존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혹은 부정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느껴졌다. 진보적인 전시 내용과 방식에 시선이 빼앗겼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존재, 그리고 함구하는 주제에 주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점이 새롭고도 흥미로웠다.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전시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프랑스의 현대 미술관은 예술을 통해 사회 변혁 꿈꾸는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4. 우리대학에 기여할 점**

우선, 글로벌탐방단 프로그램은 파견 학생들의 ‘언어능력 강화’를 가능하게끔 했다. 언어를 제 1전공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글로벌탐방단의 가장 큰 시사점은 언어 학습 및 언어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참가 학생들은 탐방 국가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현지의 언어를 듣고 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언어를 학습하고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언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팀원들 또한 파견 대학에서 일주일간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프랑스어로 질문을 하고, 프랑스어로 음식 주문 및 티켓 결제를 하며 교재와 글로 배우던 언어를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사용해볼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기관들을 방문하며 프랑스어의 세계적 쓰임과 활용도에 대해 정보를 얻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 좋은 인식을 얻기도 했다. 국제 교류를 통해 자신이 공부하는 언어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고양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언어구사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글로벌탐방단 프로그램을 통한 파견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강화’가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느끼며 해당 국가의 공동체와 교류하게 된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동기들 및 교수님과 해외에 나가 수업을 듣고 갖은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되는 경험은 흔치 않다. 우리 팀원들은 해외에서 탐방하는 전 기간에 걸쳐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을 보고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팀원들은 모두 프랑스 현지의 사람들, 음식들, 문화기관들, 문화적 가치관을 마주하며 한국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고, 다양성을 접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관용과 포용의 능력까지 갖출 수 있었다. 우리 프랑스언어문화학과의 참가 학생들은 탐방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하며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양분이 될 글로벌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탐방사진**

|  |  |
| --- | --- |
|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 **둘째 날 콩시에르주리에서** |
|  |  |
| **프랑스 도착** | **셋째 날 루브르 피라미드 앞에서** |
|  |  |